

정산 송규(鼎山 宋奎)의 치교사상(治敎思想)

이 성 전

원광대학교

〈요 약〉

정산은 원불교의 교조인 박종빈의 사상을 계승하여 원불교의 교법과 교단의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는 소태산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재해석해 감에 있어 불법을 주체로 하면서도 성리학의 사상을 폭넓게 활용하였다. 그는 특히 인도상 요법을 주체로 결함 없는 문명세계를 건설한다는 이상의 실현에 깊은 관심을 지녔다. 그는 세상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닌 치교를 중시하고 그 실천방향에 관해 도치와 덕치와 정치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세 가지는 그의 전체사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에 관한 그의 관점은 건국론에 주로 나타나는데 정의의 이념에 바탕하여 자유와 평등, 평화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내용은 근대 서구의 사회사상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 덕치에 관해 그는 성리학적 이념을 수용하여 예와 악을 통한 교화를 중시하였으나 그 한계를 지적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도치의 이념은 주로 불교적 세계주의의 이념에 바탕한 것으로서 삼동윤리란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 삼동윤리는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갈등과 대립이 극복된 대동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 그 지향방향이다. 대동사회란 표현은 유교 사상에서 유래되었으나 그가 불교적 이념에 바탕하여 내용을 확장한 것이다.

그 외에도 유·불·도 등의 전통사상에 대한 섭렵뿐 아니라 근대 서구의 사회사상에 대한 독자적 해석과 수용의 과정도 작용하고 있다. 사회를 바르게 다스려 바람직한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경제론적 관심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핵심 주제어 : 원불교, 예와 악, 교화, 삼동윤리, 대동사회

I. 서론

20세기 초엽 사회의 흐름이 격변하는 시기에 원불교의 교조 소태산 대종사(朴重彬 1891-1943)는 미래에 대한 예견에 바탕하여 새로운 질서를 위한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 즉 불법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고 모든 교법도 마땅한 바를 따라 응용하여 완전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¹⁾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불법을 주체로 하면서도 그 실현에 있어서는 ‘인도상의 요법을 주체 삼아’²⁾라는 특징을 분명히 한다. 이는 종교가 출세간적인 초월적 경향으로 치우쳐 현실적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사상에는 세간적 질서와 가치를 중시하는 유가적 입장이 상당한 정도 융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태산의 수제자이던 정산(鼎山, 본명은 宋奎, 1900-1962)은 소태산의 사상을 계승하여 원불교의 교법과 교단의 체제를 정비하였다. 정산은 성장기에 성리학에 접하고 깊이 침잠하였다. 후일 소태산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재해석해 감에 있어 불법을 주체로 하면서도 유교, 도교 등 전통사상을 폭넓게 수용하였다. 그중 경세 치교의 면에서는 특히 성리학적(性理學的) 경세사상(經世思想)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 그가 인도상 요법(人道上 要法)을 주체로 결함 없는 문명세계를 건설한다는 이상의 실현에 깊은 관심을 지닌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기본방향은 소태산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데 정산은 이를 특히 성리학적 경세사상을 활용하여 풀이한 것이다.

정산은 경세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치교(治敎)라는 표현을 선택하고 치교의 길을 도치(道治)와 덕치(德治)와 정치(政治)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여기서의 치교는 종교적 교화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교육, 정치경제적 활동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된 개념이다.³⁾

사람을 교화하는 이는 먼저 사람 다스리고 교화하는 세 가지 길을 알고 행하여야 할 것이니, 개인을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에나 가정 사회와 국가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에나 도치와 덕치와 정치의 세 가지 길이 있나니라.⁴⁾

그는 세 가지 치교의 방향을 병행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외에 세 가지를 인지의 정도에 따른 단계적인 길로도 설명한 바 있다.

1) 『대종경』 「서품」 2,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5.

2) 『대종경』 「수행품」 41장.

3) 최무석의 「정산종사 교육사상」(『정산사상의 현대적 조명』, 장산종사탄생백주년 기념사업회편, 원불교출판사, 1999, 344쪽)에서는 도치·덕치·정치를 교육의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4)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16장,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5.

첫째 도로써 다스리고 교화하는 도치가 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그 본래성품인 우주의 원리를 깨우쳐 알게 하여 불생불멸한 진리와 인과보응의 대도(大道)로 무위이화(無爲而化)의 교화를 받게 하는 것이다.

둘째 덕치가 있다. 이것은 지도자가 앞장서서 도를 행하여 덕화가 널리 나타나서 민중에 미친다.

셋째 정(政)으로 다스리고 교화하는 정치가 있다. 이는 법의 위엄과 사체의 경위로 민중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과거에는 시대에 따라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가지고도 능히 다스리고 교화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세 가지 도를 아울러 나아가야만 원만한 정치와 교화가 베풀어진 다.⁵⁾

그는 국가의 정치적 권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피지배민중의 수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도치, 지도자의 이미지나 카리스마 때문에 복종하는 덕치, 그리고 법적 강제에 기초한 정치를 구분하고 또한 장래에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이 현실적으로 복합적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한 것이다.⁶⁾

이러한 세 가지 치교 방향의 형성에는 유·불·도 등의 전통사상에 대한 섭렵뿐 아니라 일제와 해방 후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접한 근대 서구의 사회사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과 수용의 과정도 작용하고 있다.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에는 서구의 종교, 과학 뿐만 아니라 자유·평등을 중시한 계몽주의 시대의 사회사상등이 다양한 경로로 소개되었다. 지식인들간에는 서구사상의 수용문제를 둘러싸고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을 비롯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입장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동학사상(東學思想)·증산사상(甞山思想) 등에게도 영향을 끼쳤으며 그 여운이 원불교 사상에까지 미쳤다. 소태산 및 정산사상에게서도 동도서기론적 인식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방을 보지 못하고 타계한 소태산과 달리 정산은 해방후 좌우익간의 이념적 대립을 목도하였다. 이에 정산은 개화기 이후부터의 역사적 과제뿐 아니라 해방후의 격변을 풀어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정산은 유교, 구체적으로는 성리학적 관점을 적극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미 소태산의 사상에서도 유교, 또는 성리학의 적극적 수용의 측면이 나타나지만 정산의 경우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를 바르게 다스려 바람직한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경세론적 관심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이다.⁷⁾

5) 박정훈 편저, 『한 울안 한 이치에』,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2, 331쪽.

6) 김용욱, 「송정산의 건국론과 평화사상」, 『평화통일과 정산종사 건국론』,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9, 48쪽.

7) 오종일은 정산종사가 유교적 현실인식과 경세론적 관점을 종교적으로 승화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종일, 「정산의 유교인식과 종교적 승화」, 『전통사상의 현대화와 정산종사』, 정산종사 탄

그 동안 정산의 사상에 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시도되었으며⁸⁾ 이를 통해 소태산사상의 계승자로서, 또는 원불교 교법을 실질적으로 체계화한 인물로서의 그의 역할이나 위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경세론의 전체적 틀을 파악하고 그 틀을 바탕으로 그의 사상에 접근하는 측면이 아쉬워 이 글에서 검토해보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하여 있어 종교적 교화나 정치, 교육 어느 일면적 방법으로 다양한 갈등과 병폐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반의 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건전한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거시적으로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필자는 정산이 제시한 세 가지 치교의 도가 이 과제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고 도치, 덕치, 정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정산사상의 성격을 주로 소태산사상의 충실한 계승자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 사상을 제시한 측면을 강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글에서는 그가 기본적으로 소태산의 교법을 체계화하고 해석학적으로 보완한다는 입장에 서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독창적 관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소태산사상과 그의 사상 간의 차별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은 피하였음을 밝힌다.

II. 정 치

정산은 정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편, 원불교 출판사, 익산, 2000, 118쪽.

- 8) 정산의 사상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가 있었다. 특히,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그의 사상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었다. 그 가운데 본 논문과 관련된 대표적인 성과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편, 『전통사상의 현대화와 정산종사』, 익산: 원불교출판사, 2000;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편, 『평화통일과 정산종사 건국론』,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9.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원불교 사상』 15집(1992)은 정산 사상을 특집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원불교학』 2집(1997)에는 김용욱, 「송정산의 충도주의와 건국 통일론」; 김삼용, 「송정산의 생애와 사상」; 백낙청, 「통일사상으로서의 건국론」 등이 있다. 『원불교학』 3집에는 유성태, 「동양사상과 정산종사의 우주론」;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3집(1998)에는 유명중, 「정산종사의 실천실학-한국실학사에서 본 정산종사의 실학」 등이, 『원불교학』 4집(1999)에는 신광철, 「삼동윤리사상의 종교학적 재평가」; 박광수, 「세계보편윤리와 정산종사의 삼동윤리」; 신순철 「건국론의 저술 배경과 성격」; 김영두, 「정산 송규종사의 건국론과 삼동윤리」 등이 있다. 『원불교학』 5집(2000)에는 김성관, 「정산종사의 심성영기론」 『원불교학』 8집(2002)에는 정재서, 「삼동윤리의 사상적 연원과 신세기적 의의」; 김낙필, 「영기질론의 사상사적 의의」; 천인석, 「유교의 혁신운동과 송정산」 등이 있다.

정치의 교화는 곧 규칙과 방편으로 교화함이니, 세상의 대세도 잘 알고 교도 일반의 동향도 잘 살펴서 경우에 맞고 규칙에 모순이 없도록 능력 있는 천만 방편으로 교화를 행함이니라.⁹⁾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흐름, 인심의 향배와 인지의 정도 등 현실의 문제에 다각적인 관심을 두루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산은 시대적 흐름에 관해 소태산의 낙관적 관점을 이어받아 미래의 시대를 어두운 음시대가 아닌 밝은 양 시대라고 전망한다. 음시대와 양시대는 동양의 전통에서 우주의 운행,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음 세계와 양 세계는 곧 밤 세계와 낮 세계 같나니라. 밤은 어두운지라, 모든 사물을 바로 분간하기 어렵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국한된 범위만 알게 되며, 또는 밤이 되면 서로 문호를 닫고 잠을 자게 되는 것 같이 음 세계의 시대는 막히고 좁고 활동이 적고 또한 치우침이 많나니라. 그러나, 양 세계는 곧 대낮과 같아서 인지가 고루 진화하고, 주의 주장이 밝고 원만해지며, 문호가 서로 열리게 되고, 서로 만나 넘나들며 활동하는 세상이라, 이른 바 대 문명 세계니라.¹⁰⁾

밤에 비해 대낮과 같은 세계가 양 세계이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는 양의 세계 즉 양시대가 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양시대는 인지의 정도와 사회의 모습이 밤의 세계, 즉 음시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치교의 방향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절하게 역할하며, 많은 사람이 행할 수 있고 실제로 유익을 얻는 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산의 정치는 규칙과 방편으로 교화함을 의미한다. 규칙의 개념은 원불교 핵심교리를 이루는 사은(四恩) 가운데 법률은(法律恩)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법률은에서 법률이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¹¹⁾을 의미 한다. 소태산은 원불교 교법의 중요한 특징을 인도상 요법(人道上 要法), 인도정의(人道正義)의 요긴한 법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나의 법은 인도상요법을 주체 삼아 과거에 편벽된 법을 원만하게 하며 어려운 법을 쉽게 하여 누구나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법이어늘 -하략.¹²⁾

오직 인도정의의 요긴한 법만이 세상에 서게 될 것이니¹³⁾

위의 표현들은 원불교의 교법이 인도를 주체 삼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人道)란 소태

9) 『정산종사 법어』 「경륜편」 17.

10) 위의 책, 「도운편」 11.

11) 『정전』, 제 2 「교의편」 2장 3절. 법률은.

12) 『대종경』, 「수행품」 41장.

13) 위의 책, 「수행품」 9장.

산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으로서 행할 당연한 길을 의미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여러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길이다.¹⁴⁾ 이러한 정의의 개념을 정산은 거의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유가적 의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유가적 전통에서 의(義)는 인(仁)과 함께 유교사상의 대표적 덕목의 하나이다. 『논어(論語)』의 여러 언급을 종합하면 바람직한 인간상인 군자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로움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인격이라고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자는 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로움의 추구에 대립시켜 의의 개념을 사용한 것¹⁵⁾에서 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의로 규정한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다. 의의 개념이 인과 관련되면서 비교적 분명한 성격으로 규정되는 것은 맹자에 의해서이다. 맹자는 인을 인간의 순수한 본연의 마음 또는 인간애로, 의를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¹⁶⁾로 설명한다.

성리학의 경우는 의의 실천정신 즉 의리정신(義理精神)으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의를 실천하려는 자세와 공(公, 天理)을 지향하고 사(私, 人慾)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이 때 공의 내용은 윤리적 자기규제를 비롯하여 국가의 존립이라는 대의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 걸쳐있었다.

이러한 성리학의 의개념은 소태산, 나아가 정산의 정의개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유가적 의개념은 구체적 정치형태나 사회윤리로 나타날 때 신분차별을 전제로 한 시대적 제약을 안고 있었다. 이를 잘 인식하였기 때문에 정산은 정의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근대 서구의 사회사상의 중요내용을 수용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의 과학과 종교, 철학, 및 사회사상은 개화기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 영향을 받아 개화사상을 비롯한 신종교사상 등도 대두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서구사상의 실체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소태산의 사상에 서도 서구의 과학문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였다. 이밖에 자본주의적 경제질서, 제국주의적 국제관계의 극복문제도 중요하였다.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소태산은 불법을 중심한 동양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였으나 자유·평등이나 계몽주의적 시민사회의 법질서 개념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정산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러한 과제에 관해 잘 인식하고 있었는데 좌우익의 이념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이 내용은 해방 후 사회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그가 저술한 『건국론(建國論)』에 잘 나타나 있다.

14) 위의 책, 「인도품」 1장.

15) 『논어(論語)』, 「이인(里仁)」,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16) 『맹자(孟子)』, 「고자(告子)」 상(上), “仁人心也 義正路也”

『건국론』은 신생국가인 우리나라가 좌우이념의 대립을 겪는 과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국가건립의 방향을 모색한 글이다. 기본적인 정신자세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노동, 윤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소신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상세한 논의를 피하고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언급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자유·평등의 이념을 핵심으로 한 민주주의를 채택하되 좌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입장을 주장한다. 그는 평등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의 폐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평등사상이나 주의로 말하면 인류의 공동생활에 근본한 신성한 사상이어늘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자는 우선 남의 이권을 무시하고 무상취득하는 데에만 정신이 어둡게 되나니 이것이 어찌 공산의 원리리오¹⁷⁾

그는 공산주의를 그 동안 공산권에서 시행해온 체제중심으로 파악함이 아니라 ‘우주의 공도를 깨쳐서 자기사유에 애착심이 없는 정신을 가지며 노력의 대가 없이는 의식을 구하지 않는 의무를 잘 인식하는 데에서 진실한 가치가 드러나며’¹⁸⁾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어 자유주의에 관해서는 ‘인류의 평등원칙에 가장 발달된 사상이거늘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자는 우선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자행자지하여 정도 없는 생활에 빠지게 됨’¹⁹⁾을 지적하고 남의 정당한 의견, 정당한 권리를 침해 구속하지 않는 데에서 문명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견해는 자유의 남용이나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를 중도적 시각에서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중도주의란 외세의 간섭을 물리칠 수 있는 자주적 역량의 배양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내용은 해방 후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시된 것이긴 하지만 정산 자신의 이념적 지향방향과도 일관성이 유지되는 면이 있다.

중도주의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대체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바탕한 인간본성에 대한 인식, 정의의 관념이 기초가 되어 근대적 서구의 이념을 수용해가는 방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방 후 좌우익의 대립을 넘어서기 위한 정치적 중도주의, 경제적 균등을 지향하는 경제적 중도주의,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중도주의의 성격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중도주의 형성에 끼친 구체적 영향관계는 좀 더 논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⁰⁾ 최근에는 이러한 중도주의적 이념이 민족통일의 이념을 모색하는데 있어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견해도 있다.²¹⁾

17) 송규, 『건국론』, 문화문고 I,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1, 43쪽.

18) 위와 같음

19) 위와 같음

20) 강만길, 「한국 근대사 속에서 본 송정산의 건국론」, 『평화통일과 정산종사 건국론』, 정산종사 탄생100주년 기념사업회 편, 원교출판사, 익산, 1999, 113-122쪽.

III. 덕 치

정치가 규칙과 방편으로 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교화하는 것이라면 좀 더 내면적 접근을 위한 교화의 방법이 덕치라고 할 수 있다.

덕치의 교화는 곧 인정과 덕화로 교화함이니, 모든 인심을 잘 파악하여 개인 개인의 세정을 잘 보살피 주며 축 없는 마음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 교화함ियो.²²⁾

덕치는 인정과 덕화의 교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심을 파악하고 세정을 살피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치교의 방법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별적일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도 인정의 적절한 절도와 덕화의 화함이 조화를 이루는 치교의 방법으로 정산이 제시한 것은 예(禮)와 악(樂)의 교화이다.

예와 악은 특히 유가적 전통에서 덕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한 바 있다. 공자는 “시(詩)에서 바른 성정을 감발시키고 예에서 성정의 절도를 세우고 음악에서 성정의 절도를 이룬다”²³⁾ 라고 교화의 순서를 말한바 있다. 『예기(禮記)』에 의하면 예와 악의 근본목적은 천리를 지키고 인욕을 멸하는 데 있다. 요컨대 인간본성의 순수한 발현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본성이 순수하게 발현되면 궁극적으로 천인합일의 인격에 이른다는 관점이다. 즉 “대악(大樂)은 천지의 조화와 합하며 대례(大禮)는 천지의 절도와 합한다”²⁴⁾고 한다. 예와 악은 이러한 공통된 기반 위에 독자적 기능을 지니면서 서로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이를 『예기』에서는 예의 절(節)과 악의 화(和)로 제시한다. 절이란 천차만별의 차별의 절도를 뜻하며 화란 차별을 조화시킨다는 의미이다.²⁵⁾

소태산은 불교의 근본적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는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특히 불교의 출세간적 제도과 방편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일반 대중과 더불어 실현해 나가고 이를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여 불은(佛恩)이 일상의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하려는 포부를 밝힌다. 이와 관련하여 소태산은 유가에서 불가와 도가의 출세간적 성향을 비판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 허무적멸(虛無寂滅)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1) 백락청, 「통일사상으로서의 송정산의 건국론」, 같은 책, 19-38쪽.

22)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17장.

23) 『논어(論語)』, 「태백(泰伯)」,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24) 『예기(禮記)』, 제 19 「樂記」, “大樂與天地同和 大禮與天地同節”

25) 위의 책, 『예운편(禮運篇)』, 「악기편(樂記篇)」에서는 이 밖에 악의 원리를 동(同: 동일성)으로, 예의 원리를 이(異: 차별성)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예의 특징이 형식적, 외면적이라면 악의 특징은 내면적, 자발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허무적멸에 그쳐버리면 큰 도인이 되지 못하니 허무적멸로 도의 체를 삼고 인의예지로 도의 용을 삼아서 인간만사에 풀어줄 줄 알아야 원만한 대도니라.²⁶⁾

이러한 입장에 바탕하여 원불교 예법(禮法)과 성가(聖歌)의 제작이 교단초기부터 부분적으로 모색되다가 정산에 이르러 체계화되고 종합되었다.

정산은 예악을 원불교 교법의 중요한 실천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²⁷⁾ 그는 원불교의 예법을 밝힌 『예전』을 편수하였다. 그는 『예전』 통례편에서 공자의 극기복례(克己復禮)²⁸⁾를 예의 기본자세로 수용하고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²⁹⁾는 공자의 언급을 인용하여 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예의 본질에 관해 성리학의 집대성자 주희(朱熹)의 ‘예(禮)는 천리(天理)의 절문(節文)이요 인사(人事)의 의칙(儀則)’³⁰⁾이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람으로서 만일 예가 없고 보면 최령한 가치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공중도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³¹⁾이라고 한다. 예법을 제정하는 것이 인류생활에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예를 인간다움을 실현키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정산의 관점은 조선 성리학에 의해 강조된 전통적 예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가 예전을 통례(通禮)·가례(家禮)·교례(敎禮)로 구분하면서³²⁾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포괄하는 넓은 생활규범으로 규정하고 생활 전반을 예법화 함으로써 인격 향상과 사회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예법의 근본 정신은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이 발동하여 절도에 맞기를 요구하는 중용(中庸)의 정신과 일치하고 있다.

악에 관한 언급은 예와 같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성가의 근본정신을 화(和)로 규정하는 것³³⁾으로 보아 대체로 유교의 악론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 이 밖에 성가를 교화의 중요한 소재로 삼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내 어려서 천어(天語)처럼 생각되기를 ‘풍류(風流)로써 세상을 건지리라’하였더니 옛 성

26) 『대중경』, 「변의품」 20. 이와 같은 입장은 불교사상의 허무적멸적 경향을 비판한 성리학과는 다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7) 정산의 예악론에 관련된 연구로는 김낙필 교수의 「원불교 예악론의 연원과 이념」이 『精神開闢』 4輯(익산: 신용교학회편, 1985)에 발표된 바 있다.

28)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 “克己復禮爲仁”

29) 위의 책,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行”

30) 위의 책, 「학이편(學而篇)」에 관한 주희의 집주(集註), “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

31) 『예전』, 「총서편」,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5.

32) 통례란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예이며, 가례란 대체로 관혼상제의 예들, 교례란 교단의 각종의식을 말한다.

33)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인이 ‘풍기를 바꾸고 시속을 바꾸는 데에는 풍류 같음이 없다’셨나니라.³⁴⁾

교법의 정신을 풍류에 접목시켜 다양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악이다. 그 가운데 정산은 노래로 표현된 내용을 ‘성가(聖歌)’라고 이름하고 성가를 한갓 노래로만 알지 말라고 권한다. 그 속에 진리가 들어 있으므로³⁵⁾ 그 가사를 새기며 경건히 부름으로써 교리정신이 전해지도록 한다. 성가를 통해 인간의 기운이 서로 화해지기를 바라며 성가의 보급을 중시한다. 성가는 화(和)가 그 주지가 된다³⁶⁾는 것도 이러한 의미일 것이다. 정산 종사는 화합의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요순은 천하를 서로 사양하고, 제후는 아홉 고을을 서로 사양함에, 그 화기가 천하에 충만한지라, 그 정경을 풍류에 올린즉 봉황이 춤을 추었다하니, 인화(人和)는 양보로써 이루어지고, 화가 지극하면 천하의 기운이 따라서 통해 지나니라.³⁷⁾

정산은 이 화(和)하는 마음이 곧 세계평화의 기점³⁸⁾이라고 보고 악(樂)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성리학의 예악론의 기본적 흐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정산은 전통적 예론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그는 번다한 형식에 흐른 유교의 관혼상제를 비판하면서 그 개혁방향으로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산은 새로운 시대정신에 관해 진실성, 원만성, 자유, 공도성 등을 다양하게 거론하는데³⁹⁾ 이중 특히 공도성을 강조한다.⁴⁰⁾ 공도성이란 세계주의적 가치관으로서 계급적 편파성뿐 아니라 지역적, 민족적 특수 상황을 넘어선 보편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한다.⁴¹⁾

둘째 형식보다는 근본정신이 발현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는 종교적 경건성을 다시 확보하자는 것을 뜻한다. 예는 사회규범일 뿐 아니라 불변하는 자연질서 그 자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져 그 권위가 확보되었던 것이다.⁴²⁾ 이에 정산은 소태산이 제시한 처처불상(處處佛像), 사사불공(事事佛供)⁴³⁾, 무시선(無時禪) 무처선(無處禪)⁴⁴⁾등의 이념을 예법실천에 반

34) 위의 책, 「유축편」 17장.

35) 위와 같음

36) 위의 책, 「경의편」 1장.

37) 위의 책, 「도운편」 27장.

38) 위의 책, 「도운편」 26장.

39) 위의 책, 「도운편」, 「공도편」의 여러 언급 참조.

40) 『예전(禮典)』, 「충서편」.

41)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33장.

42) 금장태, 『한국유교의 재조명』, 서울: 전망사, 1982. 43쪽.

영함으로서 예의 경건성을 되살릴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념들을 통해 단순한 세속화에 떨어지기 쉬운 예법을 역동성 있게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셋째 근본적으로 평등하며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 구별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평등을 강조하자는데 의미가 있다. 이 측면은 특히 유가적 삼강(三綱)에 대한 재해석이나 충·효·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련이 깊다. 정산은 충에 관해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으로서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이라고 풀이하였다. 효는 보은의 도를 행함이요, 열이란 자신의 지조를 지키고 올바름을 행하고 올바르게 지킴을 배척할 줄 아는 의지라고 해석하였다.⁴⁵⁾ 이러한 해석은 전통적 삼강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진보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방향은 실질적으로 주로 성리학에서 제시하는 구체적 예법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정산의 예론은 그 대안으로 모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IV. 대동사회의 지향

정치와 덕치가 구체적인 경제론적 처방을 통해 인심의 순화와 사회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근원적이며 포괄적인 이상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도치라고 할 수 있다.

도치의 교화는 곧 원리와 신앙으로 교화함이니, 자기 자신이 먼저 법신불의 원리와 대종사의 교법에 전일한 신심과 철저한 자각으로 앞장을 서서 일반 교도의 신앙과 수행을 이끌어 가며 모든 신심과 사업심을 근본에 집중시키요.⁴⁶⁾

종교적 신앙과 자각을 부각시키고 자신의 완성과 이에 바탕하여 남을 이끌어주는 교화의 과정에 대한 종교적 절실함이 드러나 있다. 도치의 의미가 가장 근원적이며 원리적인 치교의 의미에 해당한다고 볼 때 그의 경제론에서 이에 상당하는 것은 1961년 4월에 발표된 삼동윤리라 할 수 있다.

삼동윤리는 동원도리(同源道理), 동기연계(同氣連契), 동척사업(同拓事業)의 세 가지 강령이 그 내용을 이룬다. 정산에 의하면 삼동윤리는 ‘앞으로 세계 인류가 크게 화합할 세 가지 대동(大同)의 관계를 밝힌 원리’이며,⁴⁷⁾ ‘장차 우리 인류가 모든 편견과 편착의 울안에서 벗

43) 처처불상·사사불공이란 우주만물이 모두 부처, 즉 우주의 궁극적 실재인 법신불의 나타남이라는 뜻이며 사사불공이란 모든 일을 할 때 부처님을 대하듯 공경하게 대하라는 의미이다.

44) 무시선·무처선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선(禪)을 수행하는 심경으로 살아가자는 것으로 선의 생활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45) 『정산종사범어』, 「경의편」 58-60쪽.

46) 위의 책, 「경륜편」 17.

47) 위의 책, 「도운편」 34.

어나 한 큰 집안과 한 큰 권속과 한 큰 살림을 이루고, 평화 안락한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길'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강령'이라고 한다.

대동사회는 전통적으로 주로 유가의 이상사회를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선진(先秦) 시대에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이상사회의 청사진은 『예기』 예운편(禮運篇)에서 일단 대동사회로 종합된다. 대동사회란 천하를 공의(公儀)의 정신으로 다스림으로서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고루 입는 사회이다.⁴⁸⁾ 예와 악의 상보적 기능이 발휘되면 하늘과 땅이 감동함으로써 천인합일의 세계가 전개되는데 이를 대동세계라 한다. 차별과 조화가 통합되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귀일되는 이상세계라는 의미이다. 대동세계의 성립에는 도가적인 요소와 유가적 요소가 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과 혼연일체된 도가적 대동에 바탕하여 사회구성원의 화합과 조화를 전지하는 유가적 평화개념이 융합된 것이다. 그러나 대동사상은 그 실현 여부와는 관계없이 오랫동안 유가적 지식인들이 지향하는 이상사회의 모델로 정착되었다.

대동(大同)이라는 글자가 처음 보이는 것은 『서경(書經)』 홍범편(洪範篇)이다. 홍범구주(洪範九疇)중에 제칠 계의(第七 稽疑)의 설명에서 군주와 조정의 관리와 국민의 의견이 일치됨을 가리켜 대동이라 표현하고 있다.⁴⁹⁾ 『여씨춘추(呂氏春秋)』 유시람편(宥始覽篇)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로 합하는 것을 대동이라 한다. 『열자(列子)』 황제편(皇帝篇)에서도 '화자대동어물(和者大同於物)'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때의 화기(和氣)란 만물이 같은 근원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씨춘추』 유시람편의 '천지만물은 한 사람의 몸과 같다. 이를 대동이라고 한다.'⁵⁰⁾와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헌들을 통해 보면 대동은 천의와의 합치, 의견의 일치, 자연의 기와의 동화, 천인합일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동사회의 이상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모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명대(明代) 양명학(陽明學)의 대동사상을 들 수 있다. 양명학은 이미 송대 성리학에서 이념적으로 모색되었던 만물일체의 이론에 바탕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양지(良知)를 지녔음을 강조하고 양지가 충분히 실현된 대동사회를 제시하기에 이른다.⁵¹⁾ 성리학에서는 사대부가 주체가 되었다면 양명학은 백성과의 근본적 일체감을 강조하는데 특징이 있다. 양명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산천귀신 금수초목에 이르기까지 친애하지 않음이 없게 되고 그리하여 나의 일체의 인이 실현되고 그런 다음 나의 명덕(明德)이 비로소 밝지 않음이 없게 되어 참으로 천지만물과 일체가 되는 것⁵²⁾이라고 한다. 특히 태주학파(泰州學派)는 이를 구현하려는 실

48)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篇)」,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修睦”

49) 『서경(書經)』, 「홍범편(洪範篇)」, “汝則有大疑 謨及乃心 謨及鄉士 謨及庶人 謨外卜筮 龜從筮從 庶民從是之謂大同 身其康強 子孫其逢世”

50) “天地萬物一人之身 此是謂大同”

51) 『전습록(傳習錄)』, 「답십문위(答聶文蔚)」, “共明良知之學於天下 使天下之人 皆知自致 其良知 以相安相養”

52) 『양명전서(陽明全書)』, 속편(續編) 1, 권(卷)26, 「대학문(大學問)」, “以至於山川鬼神鳥獸草木也 莫不實有以親之 以達吾一體之仁 然後吾之明德始無不明 而真能以天地萬物爲一體矣”

천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주었다.⁵³⁾

서구문명이 유입된 문화적 충격을 흡수하여 새롭게 제시된 모델로는 강유위(康有爲, 1859~1927)의 대동사회를 들 수 있다. 비록 급진주의적이며 이상주의적 요소가 강하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를 일가로 하는 세계주의와 계급차별을 넘어선 만민평등의 이념을 담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⁵⁴⁾ 그는 태평이란 대동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멀고 가깝고 작고 크건 간에 모두 같은 문명이 완전히 갖추어진 시대⁵⁵⁾라고 한다. 더욱이 영구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기구, 즉 통일정부까지 구상하고 있었다.

한국의 근대사에서 박은식(朴殷植, 1859~1925)의 대동사회론에는 강유위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유학적 전통에 보다 충실하여 유학이 도덕문명의 지주가 된다는 신념에 투철한 점이 눈에 띈다. 서구적 과학문명만으로는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없으며 유가적 인의 정신이 주축이 된 도덕문명이 발달해야 참된 의미의 이상사회가 건설된다고 본다.⁵⁶⁾ 박은식의 유교구신운동은 계몽시대의 민족자강운동이라는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⁵⁷⁾ 세계일가의 웅대한 포부를 제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산이 1961년 4월 삼동운리를 발표한 시대적 배경도 거시적으로는 강유위나 박은식이 당면한 상황과 상통되는 면이 있다. 그것은 서구과학문명의 도래와 서구적 시민사상의 전래라고 요약할 수 있다. 과학문명의 충격은 도덕문명의 의미와 한계를 재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시민사회의 이상은 근본적인 자유와 평등을 환기시켰다. 나아가 국가중심의 삶에서 세계가 하나 되어가는 상황으로 변화된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정산에 의해 낙원⁵⁸⁾ 또는 ‘태평시대’⁵⁹⁾로도 표현된 대동세계는 ‘화(和)’함이 관계의 최상의 가치가 되고⁶⁰⁾ ‘천하가 한 집안 되는 때’⁶¹⁾이다.

53) 태주학파의 하심은(河心隱)이 양명이 제시한 사민평등(四民平等), 이업동도(異業同道),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실제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실현하려고한 취화당(聚和堂)은 그가 종족을 단위로 실험한 최초의 유토피아였다.

54) 강유위는 그의 『대동서(大同書)』(臺北: 龍田出版社, 1979, 81-165쪽, 290쪽 참조)에서 공익을 염두에 두는 연대의식과 상호이해 화합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의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별을 없애고 가족, 국가, 인종의 벽을 없애며 너와 나의 구별이 없이 인류라는 틀레에서 화합하는 인간애를 실천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마다 자립하며 일체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각자 독립, 자립하는 개인으로 돌아가 가족관계도 소멸되며 국가도 병합되어 세계통일정부가 되어 인류가 한 가족이 됨을 꿈꾼다.

55) 강유위(康有爲), 『춘추동씨학(春秋董氏學)』 권(卷) 2, 臺北: 宏業書局有限公司, 1976, 61쪽.

56) 신용하, 『박은식의 사회사상연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2, 187쪽, 참조.

57) 예를 들면 박은식의 「하리원차허부로(賀利原遮湖父老)」(『서북학회월보(西北學會月報)』 제1권 제13호, 『박은식전집(朴殷植全集)』)에는 그의 이러한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58)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33장.

59) 『대종경』, 「전망품」 21장, 『정산종사법어』, 「유축편」 6장.

60) 『정산종사법어』, 「유축편」 29장.

삼동윤리는 ‘앞으로 세계 인류가 크게 화합할 세 가지 대동의 관계를 밝힌 원리’이다. 정산이 생각한 대동의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 ‘장차 우리 인류가 모든 편견과 편착의 울안에서 벗어나 한 큰 집안과 한 큰 권속과 한 큰 살림을 이루고, 평화 안락한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길’ 세계이다.

나아가 정산은 자신이 제시한 대동의 이념을 대 세계주의로 규정하면서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를 포괄하는 가장 큰 이념이라 보고 있다. 대동이란 개념자체의 연원은 유가적인 것이지만 그 근원적인 사상적 근거는 불교적 세계주의에서 찾고 있는 것⁶²⁾이다. 따라서 대동세계는 소태산이 제시한 이상세계인 용화세계(龍華世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소태산은 ‘미륵불이라 함은 법신불(法身佛)⁶³⁾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며 ‘용화 會上이라 함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세상에는 ‘처처불상(處處佛像) 사사불공(事事佛供)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며’,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⁶⁴⁾이 된다. 이러한 세상은 인간의 평등과 존엄이 전제된 사회이며, ‘미륵불의 참 뜻을 먼저 깨닫고 미륵불이 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자연 용화 회상이 될 것이요 미륵불을 친견할 수도 있는’⁶⁵⁾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사회이다. 용화세계가 근원적 진리가 널리 실현됨을 의미하는 원리적 맥락의 표현이라면 대동세계는 구체적으로 그 열린 모습을 함축한 표현인 셈이다. 정산이 제시한 삼동윤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원도리로서 모든 종교가 한 근원임을 알아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다. 정산은 소태산의 업적에 관해 ‘종래에는 서로 막혀서 통하지 못하던 모든 도리를 다 통하게 하시고 날이 나누어 있던 모든 법을 다 통일하기 위하사 우주 만유의 근본이시오 천만 사리의 통일체인 법신불 일원상을 크게 드러내었다’고 평가한다.⁶⁶⁾ 동원도리는 이러한 진리관에 입각해 있다.

그는 ‘모든 종교와 교화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 동원도리의 핵심임을 밝힌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역할하여 왔다고 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즉 ‘모든 종교들이 서로 문호를 따로 세우고 각자의 주장과 방편을 따라 교화를 펴고 있고’ 또 ‘종지에 있어서도 이름과 형식은 각각 달리 표현’되고 있으므로 열린 미래의 시대에는 이러한 역사적 한계를 벗어나야 함을 설파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을 추구해본다면 근원된 도리는 다 같이 일원의 진리에 벗어남이 없다’고

61) 위의 책, 「유측편」 9장.

62) 줄고, 「삼동윤리의 대동사상에 관한 일 고찰」,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편, 『전통사상의 현대화와 정산종사』, 익산: 원불교 출판사, 2000, 257쪽.

63) 인격불(人格佛)이 아닌 진리불(眞理佛)이란 의미로서 우주의 궁극적 실재, 또는 본원을 의미한다.

64) 『대종경』, 「전망품」 16장.

65) 위의 책, 17장.

66)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16장.

한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종교가 대체에 있어서는 본래 하나인 것’이라고 하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같이 이 관계를 깨달아 크게 화합하는 때에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한 집안을 이루어 서로 넘나들고 융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⁶⁷⁾할 것을 요구한다.

삼동윤리의 두 번째 강령은 동기연계이다. 모든 존재는 다 같이 하나의 진리에 근원하는 한 형제요 한 권속이다. ‘하늘의 기운 하나가 무위이화 자동적으로 우주 만유를 생성’⁶⁸⁾하는 것이므로 모든 존재는 한 기운의 산물이다. 이에 근거하여 ‘모든 인종과 생명이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 세상에는 여러 인종이 여러 지역에 살고 있고, 같은 인종 중에도 여러 민족이 있고, 같은 민족 중에도 여러 씨족이 여러 지역에 각각 살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역사와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아 왔고 서로 간격이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 근본에 있어서는 ‘다 한 기운으로 연하여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넘어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한 형제라고 한다.

그는 이러한 심경을 ‘천지를 부모 삼고 우주를 한 집안 삼는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동포 형제인 것이며, 인류 뿐 아니라 금수 곤충까지라도 본래 한 큰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천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이 관계를 깨달아 크게 화합하는 때에는 세계의 모든 인종과 민족들이 다 한 권속을 이루어 서로 친선하고 화목하게 될 것이며, 모든 생명들에게도 그 덕화가 두루 미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리를 체득하고 마음에 ‘일체의 인류와 생명을 하나로 보는’ 것을 그는 ‘큰 정신’이라고 명명하고 이러한 정신으로 ‘인류를 평등으로 통일’⁶⁹⁾하자고 한다.

셋째 동척사업으로서 그는 이에 관해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 데에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 화합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그의 문명 긍정의 입장이 보인다. 이는 유가적 문명관에 근접한 것으로 세상을 경륜하는 인간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당시의 상황에 관해 ‘지금 세계에는 이른바 두 가지 큰 세력이 그 주의와 체제를 따로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으며, 또한 중간에 선 세력과 그밖에 여러 사업가들이 각각 자기의 전문 분야와 사업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 세상에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데올로기의 극한적 대립의 시대적 상황과 그 외의 다양한 주의 주장과 활동에서 유래된 혼란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근원되는 목적은 다 같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다양한 활동들은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개척하자’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나아가 ‘악한 것까지라도 선을 각성하게 하는 한 힘’이 된다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안목에서 볼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사업이 그 대체에 있어서는 본래 동업인 것’이다. 이러한 근원적

67) 위의 책, 「도운편」 35장.

68) 위의 책, 「경륜편」 24장.

69) 위의 책, 「도운편」 36장.

이고 본질적인 이해와 자각의 안목에서 보면 ‘서로 이해하고 크게 화합’하게 되고 ‘세계의 모든 사업이 다 한 살림을 이루어 서로 편달하고 병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간의 현실적 행위의 최선의 가치 표준인 ‘중정(中正)의 길로 귀일’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마음 가운데 모든 사업을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이 될 수 있을 때 이는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⁷⁰⁾

그는 삼동윤리를 제시하면서 인간의 정신세계의 진화에 희망을 건다. 인간의 ‘큰 정신’이 이러한 이상의 대동세계를 이루는 주체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마음에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며,⁷¹⁾ 일체의 인류와 생령을 하나로 보며,⁷²⁾ 모든 사업을 하나로 보는⁷³⁾ 성숙한 인간의 정신이 이루어내는 세상이 이상의 낙원세계, 문명세계라고 할 것이다.

강유위와 박은식 등의 대동사회론이 국가의 생존이나 동양사회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제시된 것이라면 삼동윤리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원리로 제시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와 종교의 대립, 종교와 과학의 대립,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종족간의 대립 나아가 상이한 문명권의 대립 등이 그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삼동윤리는 이미 하나의 문명권으로 화하는 과정에 있는 세계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인 셈이다.⁷⁴⁾ 이렇게 볼 때 삼동윤리는 소태산 사상의 확대 내지 세계화의 차원에서는 물론 21세기의 사유 범형(paradigm)과 관련하여 깊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담론이라 할 것이다.⁷⁵⁾

V. 맺는 말

정산이 제시한 세 가지 치교의 도는 기본적으로는 교화자가 교화 대상에 대해 인격적 감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색된 개념이다. 그러나 치교의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경세론적 영역으로 확장된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경세론에는 도치(道治)·덕치(德治)·법치(法治)의 세 가지가 제시된 바 있다. 도가(道家)의 도치, 유가(儒家)의 덕치, 법가(法家)의 법치가 그것이다. 도가는 무위 자연의 도에 바탕한 삶을 통한 감화를 주장하였다. 지나친 예(禮)·악(樂)·형(刑)·정(政)의 정비 등 인위적 제약에 의존하지 않고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덕치는 군주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고 예악을 통한 교화를 중시한 관점이며 법치는

70) 위의 책, 「도운편」 37장.

71) 위의 책, 「도운편」 35장.

72) 위의 책, 「도운편」 36장.

73) 위의 책, 「도운편」 37장.

74) 참고, 앞의 글, 265쪽.

75) 정재서, 「삼동윤리의 대동사상에 관한 일 고찰」, 『전통사상의 현대화와 정산종사』,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편, 원불교 출판사, 2000, 265쪽.

군주의 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줄이고 통치 권력과 객관적 제약인 법에 의한 통치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 세 가지는 춘추전국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두되었지만 그 후 오랫동안 다양한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의 사회에 영향을 끼쳐왔다.

정산이 제시한 세 가지 치교의 도는 일견 동아시아 전통 사상의 도치·덕치·법치의 경세론을 연상시키며 실제로도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자신이 성리학을 비롯한 전통적 경세론에 충분히 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 경세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치교의 도에는 다른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덕치에는 유가적 덕치주의의 중요 소재인 예악이 긍정적으로 수용되어있지만 비판적 수용의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도치에는 주로 불법의 이념이(물론 도가적 요소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정치에는 주로 근대 서구적 사회사상의 이념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성리학적 경세론을 수습한 후에 불법과 서구적 사회사상에 접한 그의 행적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이념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건전한 사회건설의 방향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삼동윤리의 경우 종교간 문명간 인종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엄밀하게 살펴볼 때 도치·덕치·정치라는 세 가지 목표사이의 유기적 관계나 상호 정합성을 문제 삼을 때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불법의 이념, 근대 서구사상, 성리학적 예악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정산 자신은 소태산 사상에 바탕하여 이러한 제반요소를 잘 융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각론에서는 갈등과 충돌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세 가지 이념을 실천의 영역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관문과 어려움이 놓여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삼동윤리만 하더라도 선언적인 이념적 제시에 그치지 않고 그 충분한 실현을 뜻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산의 경세론에는 일제하 해방의 격동기를 살다간 지식인으로서의 우국충정과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구세이념이 녹아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 동안 『건국론』을 중심한 정치사회사상, 삼동윤리를 중심한 보편윤리사상, 예악론을 중심한 교화사상 등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정산종사의 경세론에 관한 연구를, 도치·덕치·정치라는 전체적 틀에 의해 접근한 데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틀을 염두에 두면 『예전』·『성가』의 결집, 『건국론』의 집필, 삼동윤리의 발표 등 그가 시도한 일련의 노력들이 이러한 큰 틀의 실현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은 그의 경세론의 틀을 개괄적으로 살펴 본 것에 불과하며 각론적 연구나 그 실현 방법에 관한 연구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나아가 궁극적 진리에 관한 관점에 해당하는 일원종지(一圓宗旨)에 관한 그의 견해 및 영기질론(靈氣質論)을 중심한 인간관(또는 세계관)과 관련하여 정산사상의 경세론을 밝히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원불교 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5
- 송규, 『건국론』, 문화문고 I,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1
- 박정훈 편저, 『한 울안 한 이치에』,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2
-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편, 『전통사상의 현대화와 정산종사』, 익산: 원불교 출판사, 2000
-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편, 『평화통일과 정산종사 건국론』,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9
-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편, 『정산사상의 현대적 조명』, 원불교출판사, 1999
- 원불교사상연구원편, 『정산종사의 사상』,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2
- 송천은, 『열린시대의 종교사상』,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2
- 유병덕, 『원불교와 한국사회』, 서울: 시인사, 1986
- 유명중, 『송명유학』, 서울: 형설출판사, 1985
- 조길혜등 공저, 김동휘옮김, 『중국유학사III』, 서울: 신원문화사, 1997
- 금장태, 『한국유교의 재조명』, 서울: 전망사, 1982
- 陳正炎·林其銓著, 李成珪譯,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서울: 지식산업사, 1999
- 김수중, 「양명학의 '대동'사회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강유위, 『大同書』, 臺北: 龍田出版社, 1979.
- 康有爲, 『春秋董氏學』 卷二, 臺北: 宏業書局有限公司, 1976
- 최성철, 『康有爲의 政治思想』, 서울: 일지사, 1988
- 최용하, 『박은식의 사회사상연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2

원고접수: 2007년 6월 5일 1차심사: 6월 11일 게재승인일: 6월 17일

연구자 소개: 이성전

① 전공: 원불교학 / 소속: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원불교학, 성리학

③ 주요논저: 「삼동윤리의 대동사상에 관한 일 고찰」, 「정정의 유도통합적 성격」 「이상적 삶의 길로서의 심화 기화」, 「내성외왕의 도로서의 율곡의 성학」, 「율곡의 수위론과 원불교의 삼학」, 『전통사상의 현대화와 정산종사』 외 다수.

④ E-mail: seong@wonkwang.ac.kr

Abstract

Jeong-San's Thought of Leading People and Society

Lee, Seong Jŏn

Wonkwang University

Song-Gyu(Dharma title; Jeong-San)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Won-Buddhist order upholding the thought of great master So-Tae-San(Founder of Won-Buddhism). He widely utilized Buddhist thoughts and Neo-confucianism to systemize and interpretate Won-Buddhist doctrine. He drew his attention to building the ideal civilized society that is formed on the basis of the essential ways of humanity. It is important for him to teach people and rule the society rightly. He suggested three methods to realize this plan.: leading(teaching and ruling) by morality and religious doctrine, leading by the influence of virtue, leading by laws. We can say these three methods are very important and useful in studying his thought.

We can find his viewpoint of 'leading by law' in Geongungnon(建國論, a treatise on founding a nation). He wanted to realize the idea of freedom, equality and peace based on the idea of right. These ideas were influenced by western social thoughts.

In his thought of 'leading by the influence of virtue', he emphasized on edifying people through civility and music(禮樂). It seems that he followed some main neo-confucian ideas on civility, but he pointed out the limits critically. His thought of 'leading by morality and religious doctrine' is primarily based on Buddhist's view of the world and takes concrete shape into Ethics of Triple Identity.

Ethics of Triple Identity is aimed at the grand harmonious society for all human beings of the world. He suggested its contents as follows; the Principle of the Identical Origin, the Bond of Identical Vital Force and the Principle of Reclamation with Identical Aim. The Ethics of Triple Identity is oriented to the grand harmonious society for all human beings of the world(大同社會) surmounting various complications and antagonism. The idea of the grand harmonious society for all human beings of the world is originated from Confucianism and Song-Gyu aggrandized its substance based on Buddhist thoughts.

He not only studied oriental thoughts, namely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widely, but also encountered with modern western thoughts. Based on this scholarship he suggested three ways to build an ideal society through leading people and society rightly.

Key words : Won-buddhism, Civility and art, Edifying people. Ethics of Triple Identity, Grand harmonious society